

## 광주일보

제17572호 2006년 10월 11일 수요일

## / 지역 단신 /

## 보성 득량남초등생 경로잔치 성료



보성 득량남초등학교(교장 김상태)는 최근 노인과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잔치를 벌였다. (사진) 이날 경로잔치는 위어진 전교 어린이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악창 '노다가세', 태권무, 사물놀이 부설장구 공연과 체육대회 등이 차례롭게 펼쳐졌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 지리산 쓰레기 투기·불법 주정차 단속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소장 나공주)가 다음 달부터 지리산내 쓰레기 투기와 자연 훼손, 무단 주정차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남부사무소는 지난 4월부터 국립공원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사전 예고제를 시행해 온데 이어 기관 행락철이 시작되는 이달부터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리산 남부사무소 관계자는 “매년 가을 단풍철이면 일부 탐방객들의 국립공원 훼손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탐방객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hk@



**강진읍사무소 신축** 강진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강진읍사무소 및 여성회관이 10일 신축돼 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경진=이병철기자 mood@

## 장성 평림댐 이달중 완공

총사업비 1,947억 투입 … 내달부터 담수시작

내년에 전남서부권 하루 3만t 생활용수 공급

내년부터 장성·함평·영광·담양군 등 전남 서부권에 하루 3만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게 될 장성 ‘평림댐’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 수자원공사는 총사업비 1천947억 원을 들여 장성군 삼계면 수곡리 영산강 지류에 지난 2002년 5월 착공한 평림댐 복족댐이 이달 본댐 완공과 함께 11월부터 담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댐은 높이 37m, 길이 390m이며 총 저수용량은 858만t, 유효 저수용량은 810만t에 달한다.

평림댐이 완공되면 장성 1만1천600t을 비롯 담양 8천300t, 영광 6천900t, 함평 3천200t 등 하루 3만t의 생활용수를 4개군에 나눠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급수 보급율이 기존 31.7%에서 76.9%로 향상되게 된다.

또한 댐건설과 함께 하루 3만t를 처리 할 수 있는 정수장과 가압장 3개소, 88.8

km에 달하는 도·송수 시설도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평림댐 공사로 삼계면 수곡리 등에 거주하는 79세대가 이주했으며, 6.5km의 지방도와 군도가 이설됐다.

/송기동기자 song@



전남 서부부 지역 4개 군에 하루 3만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게 될 장성 평림댐의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 진도대교 모노레일카 설치

진도대교 인근에 모노레일카 설치가 추진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의 관문인 녹진전망대(358m)에 모노레일카를 설치, 진도대교와 명량대교인 울돌목을 감상 할 수 있는 진도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은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뒤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에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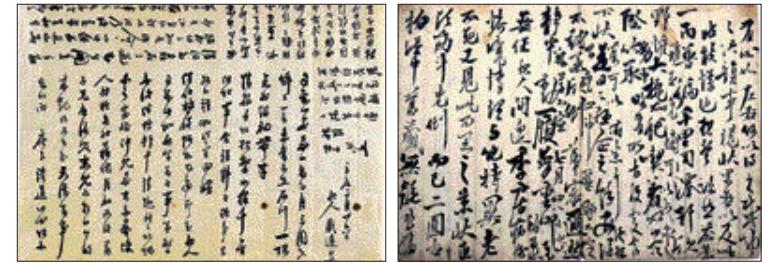
## 다산·추사 유물 47점 첫 공개

다산 정약용(1762~1836) 선생과 추사 김정희(1766~1856) 선생의 학문과 예술을 담은 간찰(簡札·편지)과 서책 등 미공개 유물을 이 처음으로 소개됐다.

이들 유물들은 당대 학자들의 학문적 교류 실태를 조명하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강진군은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다산 선생을 비롯 증손자 등 5대에 걸친 간찰 15점과 추사 관련 유물 4점, 아암 해장선사의 작품 5점 등 모두 32점의 유물을 공개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다산의 아버지인 정재원 선생이 이주서(李注書)에게 보낸 간찰(印軸)과 추사 김정희 선생이 다산의 제자인 금계 윤종진에게 보낸 편지.

## 장흥에 ‘한승원 문학산책로’

## 郡, 안양면 여단이 해변에 詩碑 30기 세워

장흥출신 중견 작가인 한승원씨의 문학작품을 기리는 ‘한승원 문학산책로’가 9일 오후 장흥군 안양면 을산마을 여단이 해변 현장에서 준공됐다.

울산마을 주민들의 뜻에 따라 세워진 ‘한승원 문학 산책로’에는 이곳에서 1996년부터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한승원 작가를 위한 시비 30기가 을산마을 여단이 바닷가 산책로 600m에 20m 간격으로 세워졌다.

2억여원을 들인 이 산책로에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바닷가를 둘러 보고 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간이의자와 돌·나무로 된 통로가

조성돼 있으며 시비에는 이곳에서 사는 마을 사람들의 정운 모습을 그린 한승원씨의 시들이 새겨져 있다.

여단이 해변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가장 깨끗한 해변이 숨쉬는 아름다운 바닷가에 뽑힐 만큼 풍경이 뛰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다.

1939년 장흥에서 태어난 한승원씨는 1968년 대한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조선대 초빙교수로 활동중이며 최근에는 을산마을 여단이 해변에 집필실인 ‘해산토굴’을 만들어 작품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장흥=김용기자 kykim@

## 주석 구성객 불편 해소

## 보성군 종합상황실 호응

보성군(군수 정종해)이 주석을 맞아 각종 민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군은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관내 지방2급 하천 84개소 및 소하천에 2천 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재방보수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하천제방 정비로 유수 흐름의 원활을 돋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 어 재난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창=김준원기자 jwkim@



한 명절 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했다.

군은 이밖에 귀성객들을 위해 역, 터미널 등에 홍보코너를 설치, 녹차무료 시음(사진)과 보성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성소식지’를 배부, 관광보

성의 이미지 제고에도 앞장섰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 정우부동산랜드

☎ (010)-9023-011-807-2213

(전화번호 대체로 고화문사)

상업지 5층상가 오피스텔

구매금액 분양가 (총면적 200평)

대체로 200평 100평 100평 100평

1200세대 APT 1층상가 16평

·나주시 1층 8평 총 21평(수퍼, 식당, 세

박·미용 등 사업유형) 16평 10평 8평

회순은 농가주택 187평

·나주시 1층 187평 10평 25평 25평

2000평 200평 대체로 8평 10평

관련지역 대지 210평(공장부지)

·승현 훈련장면적 210평(공장부지)

도로길 평당 35평(공사기지 38평)

남구 승촌기숙식당 257평 매도

·지상 2층 1층 1층 1층 1층 1층 1층

1층 1층 1층 1층 1층 1층 1층